"삶 속 희로애락 담은 시로 감동 주고파"

●일·창작활동 병행 늦깎이 작가 박서영씨

'기억상실' 등 3편…'2023 문학예술' 신인상 등단

꾸준한 창작활동으로 이름 내건 시집 발간 소망도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돼 기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에 대한 열망을 갖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펼쳐가고 싶어요."

지난해 '문학예술' 2023 봄·여름호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한 박서영(46·사진)씨는 생활전선을 바삐 오가면서 간간이 글을 써내려가는 새내기 작가다.

문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학창시절부터 취미삼아 시나 소설, 수필 습작을 이어왔다.

늘 작가의 꿈을 지녀온 그는 친구의 권유로 2022년부터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창작반 수업을 다니게 됐다. 본격적인 시 공부는 등단에 대한 열망을 일으켰다. 이지엽 교수를 비롯해 김영창·박래홍 시인 등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기억상실' 등 세 편의 당선작을 통해 작가로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박씨는 "아직 미흡한 제 글을 보여준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며 "일반인이 작가로 등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도편달 해주시고 응원해 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놓고 온 게 있었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선연한 발자국이 눈 덮인 길 위에 늘여져 있다//가던 길을 마저 걷자니/선득한 느낌에 거듭 뒤돌아본다/얼기설기 발자국 꼬리 물고 길게 늘여져 있다//잃어버린 것인가 잊어버린 것인가/하릴 없이 발자국을 내려다본다/雪인지 눈물인지 발등에 뚝 떨어진다//태연히 옷을 단단히 여미고/애써 외면하며 서리꽃 핀 가지사이로/홀홀히 발걸음을 내딛는다//소리 없이 내리나니/쌓여가는 눈에 덮여버리는 발자국처럼/기억도 서서히 지워져 갈 것이다.' (작품 '기억상실')

당선작 '기억상실'은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 겨울을 배경으로 이별의 아픔을 넌지시 내비치면서도 슬픈 감정을 애써 잊어보려 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있다.

평소 사랑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에 집중하면서도 삶 속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아낸 글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글 속에 투영된 제 마음이 독자들에게 감동이 됐으면 좋겠다"며 "언젠가는 제 이름 석자 내건 책 출간에 대한 소망도 지니고 있다. 많이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공군 1전비, 지역아동센터에 격려품 전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28일 "지난 26일 부대 인근 지역아동센터 7곳을 방문해 200여명의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과자·음료 등 격려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와 공군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학기를 맞이한 미래 항공우주 주역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대만(대령) 감찰안전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새로운 학교생활을 응원하고자 부대 인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게 됐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KTX 개통 20주년 포럼'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는 28일 "전날 광주연구원과 협력해 'KTX 개통 20주년 발전사 조명 및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KTX 개통 2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써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포럼의 좌장은 류재영 전 한양대 겸임교수가 맡았고 이석우 한국철도공사 여객서비스처장이 'KTX 개통 20주년 발전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장준석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호남고속철도 운영 실태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류재영 전 한양대 겸임교수는 "광주권 KTX정차역 추가 설치, 광주시민 이용 편익을 위한 철도 연계 교통망 확충 및 KTX 역세권 개발 등 전국 주요 테마 허브를 KTX와 연결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온 KTX 20년을 기념하고 그 동안의 발전상을 조명, 새롭게 나아가 앞으로 100년 여정의 철길도 국민과 함께 달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석규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토론으로 도출된 KTX 운영과 관련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철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정 기자

광주 동·서부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실' 개소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8일 "전날 동·서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이뤄졌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지하 1층에 새롭게 마련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실은 앞으로 활동에 필요한 심의실과 대기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동·서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위촉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63명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개소식으로 동·서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광주공항-호남대 '여객 참여형 문화예술 이벤트' 협약

광주공항은 28일 "전날 호남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와 여객 참여형 문화예술 이벤트 시행 등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이륙위크(26 WEEK) 행사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성,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륙위크는 한국공항공사 14개 공항에서 매월 26일이 속해있는 주마다 공항 이용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주간을 말한다.

이근수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으로 맺어진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 학생들의 커리어 발전은 물론, 문화 속 공항으로 발돋움하는 광주공항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공항 이용객에게도 특별한 문화체험을 통한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정 기자

구례 광의파출소, 시설하우스 단지 범죄 예방 순찰

구례 광의파출소는 28일 "전날 자율방범대와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 범죄 예방 홍보 및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용방면 선월리 시설하우스(오이) 단지를 찾아 농업용 전기모터 설치 장소를 점검하고, 야간에 취약한 시설하우스의 특성을 노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 주인을 대상으로 범죄 유형과 예방법을 홍보했다.

주광진 구례 광의파출소장은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와 협업해 지역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농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 절도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영암 삼호지구대, 실종자 수색 신속 대응체계 구축

영암 삼호지구대는 28일 "전날 주민 참여 치안 활성화를 위한 실종자 수색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삼호읍 자율방범대, 용당 자율방범대, 삼호읍 의용소방대, 삼호읍 여자의용소방대, 청년회, 이장단이 참석했으며 민관 협력 치안 활성화,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최재영 영암 삼호지구대장은 "실종자 수색 특성상 초기 집중수색이 중요한데 경찰의 수색 인력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한 실종자 조기 발견과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색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서창훈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재선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제41차 정기총회와 제157차 이사회를 열고 서창훈(사진) 전북일보 회장을 이사장으로 재선임했다.

또 고영진 경남일보 회장과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새 이사로, 한인섭 중부매일 사장을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박진오(강원일보 사장) 감사는 유임됐다.

한편 이사회는 우병현 아시아경제 발행인과 황재훈 연합뉴스 논설실장, 이영미 국민일보 뉴미디어영상센터장을 2024-2025년 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진수 기자

담양경찰, 치안 성과 전략회의

담양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24치안 성과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호 경무과장, 김영일 경무계장, 각 과 계·팀장, 관내 파출소장들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치안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올해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능 간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현오 담양경찰서장은 "치안 성과 향상은 군민의 치안 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정성을 다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목포해경, 해양오염 사고 대비 도상훈련

목포해양경찰서는 28일 "전날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신속한 방제 조치를 위해 가상으로 지역방제대책본부를 꾸려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선박 충돌로 인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를 가정해 지역방제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처리 절차를 수행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유해환경 점검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28일 "지난 26일 영광읍 일대에서 새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감시단원으로 활동 중인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했다.

감시단은 영광읍 일대 노래방, PC방, 편의점, 음식점 등 술·담배 판매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총 43곳을 방문,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협조와 당부를 전달했다.

최수남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은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부음

▲이정헌씨 별세, 이승현(KT전남전북광역본부 홍보담당)씨 부친상=발인 30일(토) 오전 7시 광주 선한병원 장례식장 특실(062-365-4004).